

國內外 뉴스

▲ Michelin 그룹, BF Goodrich의 航空機用 타이어 部門을 買收

最近 Michelin 그룹이 BF Goodrich의 航空機用 타이어 部門을 買收하기로 兩社가 合意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Michelin 그룹은 BF Goodrich의 美國 Norwood(N.C.州)에 있는 航空機用 타이어 生産工場, 北美 3個所(Montreal, Los Angeles, Kansas city)에 있는 再生 타이어 工場, 航空機用 타이어의 研究·開發部門, 販賣部門, Goodrich의 航空機用 타이어의 브랜드 使用權 및 生産技術 등을 取得하게 된다. 同計劃은 正式으로 本契約 및 政府許可 등 必要한 절차를 끝낸 후 점차 실시한다고 하나, 買收金額, 正式契約時期 등은 밝히지 않고 있다. (Rubber & plastics News, 88. 10. 17)

▲ Yokohama · Toyo · Conti / General, 合 作會社 正式契約

— 90년에 TB Radial 타이어 生産開始 —

Yokohama, Toyo, Continental 3社는 이미 87年 12월에 技術交換·協力關係를 締結하였고 이번 에는, 이 3社에 Continental 傘下에 있는 General Tire가 參加하여 4社合作으로 美國에 트럭·버스용 Radial 타이어를 生産하는 合作會社를 設立하기로 合意하고, 지금까지 企業化調査를 해왔다.

9月27日 發表된 合作事業의 內容은 ① 新會社設立의 正式契約은 10月中에 하고, ② 新會社는 Mount Vernon(III.州)에 있는 General Tire 工場內에 트럭·버스용 Radial 타이어의 生産設備를 新設한다. ③ 操業에 있어서는 General Tire가 3社의 委託을 받아 하게 되나, Yokohama, Toyo에서도 人員을 파견한다. ④ 生産開始는 1990年으로 豫定하고, 92년에는 年間 約 88萬個의 TB Radial 타이어를 生産한다. 投資總額은 92년까지 約 2억달러로 豫想하고 있다. ⑤ 製品은 北美에 있는 4社의 販賣網에 供給한다고 한다. (타이어 新報 速報版 88. 9. 30)

▲ '87年度 乘用車用 및 트럭·버스용 타이어 國別 生産順位

(單位: 100萬個)

國別順位	乘用車用 타이어	國別順位	트럭·버스용 타이어
1. 美國	167.5	1. 日本	45.5
2. 日本	90.4	2. 소 聯	未詳
3. 프랑스	50.0	3. 美國	35.5
4. 西獨	42.1	4. 韓國	8.0
5. 이태리	26.4	5. 프랑스	5.6
6. 英國	23.9	6. 印度	未詳
7. 캐나다	23.6	7. 西獨	4.8
8. 소 聯	未詳	8. 멕시코	4.8
9. 브라질	20.5	9. 브라질	4.2
10. 스페인	19.7	10. 캐나다	4.0

(Rubber & Plastics News, 88. 10. 17)

▲ 필리핀, 타이어 輸入 急增趨勢

필리핀은 86年 10月 이후 타이어 輸入을 自由化한 이후 今年들어 타이어 輸入이 急增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國內生産業界는 타이어 生産部品 輸入關稅引下 로비를 벌이고 있으며 最近 필리핀 政府는 수입시 輸入檢査를 강화하고 있다.

필리핀 타이어 製造業者協會에 따르면 지난 8月末 現在 필리핀의 타이어 輸入은 前年同期的 11萬個에 비해 80.74%나 增加한 199,000個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87年 한해에 輸入된 타이어 數量은 188,000個에 달했으나 今年에는 8月末 現在로 작년 輸入量을 이미 초과하였다.

이와같이 타이어 輸入量이 急增한 것은 필리핀 國內需要의 急增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86年度에는 輸入 타이어의 필리핀 市場占有率이 4%(66,000個)에 불과했었으나 87年度에는 10%로 急增하였다.

現在 필리핀에는 Philtread, Goodyear 및 Sime Darby 등 3個社가 타이어를 生産하고 있는데, 이들은 86年 10月부터 타이어가 輸入自由화된 이후

필리핀 國內市場을 輸入品에 잠식당해가고 있다고 不平하고 있다. 타이어 輸入量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 3個社는 市場占有率을 유지하기 위해 타이어 原資材 輸入關稅率을 合成 고무는 現行 20%에서 10%로, Steel cord는 現行 30%에서 10%로 각각 引下, 競爭力을 확보할 수 있도록 對政府 로비 活動을 強化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필리핀 政府는 9月 12日 발표한 回章 1181호를 통해 日本·臺灣·香港으로부터 輸入되는 타이어에 대해서는 5,000달러 이하 輸入時에도 船積前 輸入檢査를 받도록 하여 國內 生産業者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다. (KOTRA 海外市場, 88. 9. 28)

▲ 濠洲, 타이어 需要 50% 以上 輸入依存 - 年間需要 1,400 万個 -

濠洲의 타이어 市場은 自動車 보급의 大衆化로 規模가 비교적 큰 편이며 年間需要는 物量 약 1,400 万個, 金額으로는 A\$4억7,200 만에 달한다. 이 중 53%에 달하는 742 万個가 輸入에 의해 충당되고 있고 나머지 47%가 國內業體에 의해 生産·供給되고 있다.

濠洲에는 Goodyear, Bridgestone, Dunlop Olympic, Firestone 등 4 個業體가 있으나 Dunlop Olympic 社를 제외하고 모두 外國系企業으로 現地生産 뿐만 아니라 多樣한 種類의 타이어를 海外의 系列 會社나 다른 輸出業體로부터 輸入하기도 한다.

濠洲市場에서 需要되는 타이어 種類는 需要者의 필요에 따라 다르나 安全性·性能·耐久性 등의 요소가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데, 이는 年平均 約 2만km 를 초과하는 現地 消費者들의 넓은 行動半徑에다 부적절한 타이어 使用이 車輛 運行經費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濠洲에서 需要되고 있는 타이어는 乘用車 用 타이어가 全體需要의 33.4%에 달하고 있으며, 다음에 버스나 大型 乘合自動車用 타이어가 31.1%, 트래더용 타이어가 30.2%의 占有率을 보이고

濠洲의 自動車用 타이어 輸入実績

(1987) (單位: A\$ 1,000, %)

國 別	金 額	占 有 率
日 本	128,995	49.5
韓 國	16,457	6.3
英 國	15,847	6.1
프 랑 스	14,269	5.5
美 國	12,047	4.6
西 獨	11,440	4.4
台 灣	6,520	2.5
스 케 인	4,003	1.5
中 國	742	0.3
이 태 리	687	0.3
브 라 질	35	-
其 他	49,654	19.0
合 計	260,686	100.0

濠洲의 乘用車用 타이어 輸入実績

(單位: 1,000個, A\$ 1000, %)

	85 / 86			86 / 87			87. 1~10		
	數 量	金 額	構 成 比	數 量	金 額	構 成 比	數 量	金 額	構 成 比
日 本	897	31,578	36.2	822	33,474	38.4	253	10,526	30.7
中 國	35	765	0.9	25	742	0.9	4	99	0.3
台 灣	104	2,536	2.9	36	941	1.1	18	435	1.3
西 獨	149	6,030	6.9	153	7,737	8.9	120	5,780	16.9
프 랑 스	272	9,520	10.9	205	8,517	9.8	75	3,829	11.2
韓 國	156	4,797	5.5	109	3,579	4.1	40	1,278	3.7
英 國	131	4,497	5.2	88	3,598	4.1	25	1,038	3.0
美 國	90	4,639	5.3	77	4,322	5.0	30	1,565	4.6
其 他	773	22,784	26.1	696	24,242	27.8	279	9,722	28.4
合 計	2,607	87,146	100.0	2,211	87,152	100.0	844	34,272	100.0

있다. 최근들어서는 튜브없는 Radial 타이어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耐久性과 安全性 때문에 Steel belted Radial 타이어 需要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86/87年 濠洲의 타이어 輸入은 總 741만個로 A \$2억6,070만에 달했으며, 가장 많이 輸入한 것은 乘用車用 타이어이고, 그 다음은 버스用·트럭 用 등으로 되어 있다.

主要 輸出國으로는 日本이 A \$1억2,900만을 供給해서 全體輸入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A \$1,600만으로 6.3%의 占有率을 나타내면서 英國을 다소 앞질러 2번째로 큰 供給國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乘用車用 타이어의 경우에는 日本이 38.4%, 프랑스가 9.8%, 西獨 8.9%로서 濠洲全體 乘用車用 타이어 輸入의 57.1%를 供給하고 있으며, 버스나 大型 乘合自動車用 타이어의 경우에도 역시 日本이 46.5%의 物量을 供給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乘用車用 타이어보다 이 품목에서 強勢를 보여 12.8%를 供給하고 있다.

타이어가 濠洲에 輸入되기 위해서는 濠洲標準協會의 까다로운 品質 및 規格條件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실제 輸入되는 製品의 品質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또한 輸入商들도 이에 크게 개의하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消費者들은 自動車의 安全運行이라는 점에서 타이어의 品質·性能에 대해 민감한 편이며 디자인이나 外觀에도 큰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점에서는 대체로 日本, 英國, 西獨産이 압도하고 있다.

價格에 있어서는 日本이 가장 비싸고 英國, 프랑스, 西獨製品도 비싼 편이나 우리나라産은 價格面에서 매우 競爭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最近에는 濠洲 달러貨가 계속 下落해서 輸入品價格이 다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日本製品은 円貨의 平價切上 등으로 輸出價가 큰 폭의 引上壓力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Goodyear, Firestone 등과 같은 大企業은 자체의 都·小賣 販賣網들을 통해 最終消費者들에게 販賣하고 있으며, 注油所나 차량정비소 등 일반 小賣業者들에게도 供給하고 있다. 獨立 輸入業者들은 자체의 小賣販賣網을 갖추지 못하고 大企業들의 販賣網에 일부를 供給해서 구색을 맞추거나 혹

은 주로 一般小賣業者들을 대상으로 타이어를 供給하고 있다.

製品을 最終消費者에게 販賣한다는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濠洲市場에서 브랜드名の 重要性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친숙한 브랜드 製品이 消費者들에게 신뢰감과 安全度·性能 등에 대한 認識度를 높여주기 때문이다.

(KOTRA 海外市場 88. 10. 26)

▲ 파나마 自動車用 타이어 全量輸入依存

파나마는 自動車用 타이어 生産業體가 全無하여 需要全量을 輸入에 依存하고 있다.

高温多濕한 기후 조건과 美國으로부터 받은 文化影響으로 乘用車는 일상생활에 필수품이나 差無하다. 특히 乘用車市場은 日本産이 독차지하고 있으며, 車輛供給時 自國産 타이어를 장착해 供給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어 自動車所有者가 타이어를 交替할 때에는 본래 장착되어 있던 商標의 타이어를 찾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87年 부터 우리나라産 乘用車가 파나마에 上륙함에 따라 우리나라産 타이어를 많이 찾고 있다.

파나마의 自動車用 타이어 年間需要規模를 보면 年平均 약 1,170만달리이며, 再輸出을 위한 콜론 自由貿易地帶의 需要規模는 年平均 약 95만6천 달리에 달한다.

파나마의 自動車用 타이어 輸入実績

國 別	(乘用車 및 트럭·버스用) (單位: US\$)		
	1984	1985	1986
브 라 질	745, 221	397, 391	177, 511
캐 나 다	117, 213	30, 367	36, 801
韓 國	1, 285, 073	1, 282, 713	1, 788, 234
코스타리카	443, 934	386, 786	690, 621
칠 레	131, 722	84, 063	91, 560
美 國	3, 360, 440	2, 319, 307	1, 775, 608
日 本	5, 332, 394	6, 238, 956	6, 453, 903
포르투갈	28, 319	110, 772	91, 096
콜론地帶	359, 111	174, 359	202, 652
其 他	290, 730	373, 469	301, 237
合 計	12, 094, 157	11, 398, 183	11, 609, 223

87年 6月の 파나마 사태 이래 政局이 不安하고 景氣가 매우 침체해서 外國企業의 철수 및 營業活動의 축소로 失業者가 增大하고 있어 自動車와 타이어 需要도 減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産 自動車の 進出과 이에 따른 우리나라産 타이어에 대한 認識提高로 우리나라産 타이어의 需要는 다소 增加될 展望이다.

파나마(콜론 自由貿易地帶 제외)의 自動車用 타이어 輸入規模는 86年度에 1.160 만9,223 달러로 85年度의 1,139 만8,183 달러에 비해 약 2%의 增加勢를 보이고 있으며, 主要 輸入市場은 日本·美國·韓國 등이고 그 중 日本으로부터 輸入은 645 만 3,903 달러로 86年 總輸入額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日本産 自動車供給時 自國産 타이어를 供給함에 따라 需要者들이 타이어 交替時에 既存商標를 찾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産 自動車用 타이어 輸入規模를 보면 86年度 178 만 8,234 달러로서 1985年度의 128 만 2,713달러에 비하면 약 30%의 伸張勢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産 自動車が 본격적으로 進出되던 우리나라産 타이어의 需要도 다소 增加될 것으로 展望된다.

파나마의 타이어 小売價格

(單位: US\$)

國別	브랜 드	크 기	價 格
美國	Goodyear	600-12	26.95
美國	Goodyear	155/80R13	39.99
美國	B F Goodrich	155SR12	30.95
美國	B F Goodrich	155SR13	32.95
美國	B F Goodrich	165SR13	34.95
韓國	Marchal	155SR12	25.00
韓國	Marchal	155SR13	27.95
韓國	Marchal	165SR14	32.00
日本	Yokohama	155SR12	25.00
日本	Yokohama	145SR13	31.00
日本	Yokohama	175/70HR12	35.00
日本	Toyo	155SR12	29.00
日本	Toyo	155SR13	31.00
日本	Toyo	165SR13	36.00
日本	Bridgestone	175/70HR12	33.69
日本	Bridgestone	560×13	25.60
日本	Bridgestone	645×14	29.75

한편 再輸出을 위한 콜론 自由貿易地帶의 輸入規模를 보면 86年度에는 84 만1,758 달러로, 85年度의 64 만758 달러에 비해 약 31%의 伸張勢를 보이고 있다. 主要 輸入市場은 韓國이며, 86年度 우리나라로부터의 輸入은 42 만6,178 달러로 86年度 總輸入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다.

콜론 자유무역지대의 再輸出規模는 86년에 80 만 8,582달러로 85年度의 66 만8,152 달러에 비해 약 21%의 增加勢를 보이고 있으며, 主要 再輸出地域은 니카라과, 파나마, 쿠바 등이며 86年度 니카라과로 輸出된 金額은 28 만1,549 달러로 總 再輸出額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KOTRA 海外市場. 88. 10. 31)

▲ 日本, 타이어 輸出入 實績

— '88. 1 ~ 9月 —

最近 日本大藏省에서 發表한 9月の 輸入通關實績을 보면, 타이어 總 輸入量은 1,095,461 個로 前年同月比 45.3% 增加하였고, 金額面으로도 約 48억 5,373万円으로 同 28.8% 增加하여 높은 增加率을 나타냈다.

따라서 1~9月 累計를 보면 8,804,982 個로 前年同期比 148.4%이며, 昨年 1年間의 實績인 8,201,998 個를 上廻하였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今年末까지는 1,200萬個까지 突破할 것으로 確實視되며, 金額으로는 總 412억 7,582万円으로 前年對比 126.1%가 될 것으로 豫想된다.

한편, 自動車用 타이어 輸出은 世界的으로 타이어 需給이 不振한 狀況이므로 계속 好調를 보이고 있다. 大藏省에서 發表한 9月の 輸出通關統計를 보면, 타이어 輸出總額이 1억75,233,000 달러로, 前年同月比 126.3%이고, 數量으로는 3,415,000 個로 同 121.4%이다.

9月の 輸出狀況을 地域別로 보면 알제리아, 이집트를 中心으로 한 아프리카 諸國이 前年同月比 217.8%로 대폭 伸張하였고, 最大輸出市場인 北美은 7,514万 달러로 前年同月比 129.5%, 또 西獨, 英國 등 유럽 市場은 2,914万 달러로 同 128.4%로

日本の 國別 타이어 輸入実績

(’88. 1~9月)

(單位: 1000個)

國 別	輸 入 量	前年對比 (%)
① 美 國	3,245	246.8
② 오스트리아	1,124	97.8
③ 西 獨	968	102.5
④ 韓 國	825	165.4
⑤ 스 페 인	578	99.8
⑥ 台 灣	342	44.6

각각 늘어났다. 한편 戰火가 멎은 中東市場도 前年比 99.7%로 回復勢를 보이고 있다.

1~9월까지의 타이어 輸出累計는 15억6,600万 달러로 前年比 126%이고, 重量으로는 579,000톤 (同 120%)으로 높은 水準을 유지하였다. 또한 그 후 이란의 民貿再開 등 好材는 있으나, 最近의 円高 등의 영향으로 採算의으로는 樂觀만 할 수는 없는 狀況이다.(타이어 新報速報版 88. 11. 1)

▲이란 政府, 타이어 民間輸入을 許可

이란 政府는 10月18日, 民間會社나 또는 個人에 의한 一部物資의 輸入을 許可한다고 發表하였다. 이것은 大統領, 國會議長, 最高裁判官 등 3權의 長과 首相으로 構成되는 “再建評議會”가 決定한 것이며, 輸入이 許可되는 對象品目은 食糖, 타이어, 自動車部品, 醫療品, 양계사료 등이다.

이들 品目은 지금까지 1980年 5월에 設立된 “調達流通 센터(PDC)”가 調達하여 民間에 支給하는 形式으로 輸入을 統制해 왔는데, 특히 國產乘用車用 타이어는 市場에서 品貴狀態라고 한다.

國內의 타이어 메이커 등 關係者는 이번 措置가 實施됨으로써 이것이 市場價格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하는 期待를 갖고 있으나 販賣價格, 販賣時期 등 구체적인 實施內容은 아직 未定이므로 當分間은 價格均衡 등 經過를 보면서 檢討될 것으로 보인다.

(타이어 新報速報版 88. 10. 28)

☆

☆

☆

隔月刊 **타이어** 11~12月號
고 무

發行日字 1988年 12月 1日

登錄日字 1973年 1月 31日

登錄番號 (바) 제 461호

發行人 洪 健 憲
編輯人 金 址 柄
印刷人 朴 潤 根

發行所 大韓 타이어工業協會

서울特別市江南區三成洞 159
(貿易會館 1910號)

電話 ㉿ 1906~9 郵番 135-729

FAX ㉿-1910

印刷所 (株)時事文化社